

매년 임산부 50만명 사망

국제가족계획연맹 연례보고서 여 90. 9. 7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은 최근 <'89·'90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인구 및 모자보건현황을 발표하고 범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0만명 이상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전세계 3억 이상의 부부들이 더 이상 아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피임방법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

개발도상국의 작년에 임신했던 1억4천만명의 여성 중 1/3 이상은 더 이상의 임신을 원하지 않았지만 피임보급의 미비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로 인해

죽음까지 감수하고 있다.

세계의 인구는 현재 53억으로 매일 25만명, 매년 9천1백만명씩 증가하는데 이는 해마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을 합한 만큼의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50만명에 달하는 임산부의 사망은 임산부를 가득 태운 점보기 한 대가 매일 5시간마다 추락하는 셈이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은 가족계획과 피임보급을 위한 자금투자가 현재의 4배 이상 증가돼야 인구폭발 방지와 모자보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